

“우리의 都市는 어디에 있는가?”

박 상 호
석림건축연구소

근년에 와서 한국은 세계의 선진문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많은 국제 인사들의 해외나들이 등을 통하여 갑자기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도시 주거환경 등에 관심을 쏟고 있고 비전문인의 입장에서 아파트의 형태가 어떻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외국의 도시환경, 주거단지의 경관 등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과거의 어려웠던 살림이 있었고, 그것은 민간이나 정부 당국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개발은 해야겠고 투자비용은 적고 자금수지의 균형은 잡혀야 하고, 이러한 웅색한 사연들의 결과는 일련의 아파트 대집단 단지가 거대한 아파트군으로 지루하고 단조롭게 단순종류의 건물이 형성되고 만 결과가 되었다.

요즈음의 주택산업을 기업이나 국가가 다 한번쯤은 이러한 대단지의 계획사업의 결과가 우리 정신문화에 결과적으로 좋은 나쁜간에 주민의 생활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 건축행정에서 건축 및 문화부분의 일부를 포함한 전문적 자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며, 지나친 세부적인 규제의 건축법의 부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구속력이 많은 법규 구속 속에 창의적인 미학이 創出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단지나 어느 특정지역, 단지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종합 조형성과 토탈디자인적인 종합 문화성 등의 관점에서의 종합설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완벽한 설계, 시공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아쉬우며 계획이나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현상설계나 계획기간을 잡아야 함에도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과오가 생기기 쉬운 사례가 허다하다.

흔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경우 과거에 정성들여 지은 건물이 오늘날에 와서 땅값이 오른 지역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역사가 있는 건물, 좋은 사연이 있는 기억을 살려서 국민의 각성이 될 수 있는 건물은 가급적 존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

서울의 경우 을지로 입구의 산업은행 건물이 그렇고 화신입구의 화신건물이 그렇지 않은가?

또 최근에 태평로의 구 국회건물이

그러하다.

서구의 도심들은 고도시의 중심부에 역시 이삼백년전의 건물이 철저히 관리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설비나 내부장식 등만이 고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생활속의 예술로서 가꾸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래된 것, 지역적인 자연환경 조건과의 조화정신이 아쉽다. 관리면이나 색채조절, 기능상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꾸어 가면 좋은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집 대문, 담, 나의 환경, 우리 마을의 뒷골목, 도시의 옥상, 간판 등 많은 정비와 정돈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좀더 확대하여 도시 조경 관점에서 본다면 도심의 고가도로 교량 등의 조형성, 미관성, 도시 대형건물군의 지역환경과의 입체적 조화성이 아쉬운 것이며 더욱 세밀하게는 외부마감, 재질, 색깔, 형태 등도 매우 세심한 신경이 가야하는 확대조형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